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46
<https://doi.org/10.29212/mh.2020..1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 -

이경분**

1. 들어가며
2. 거제 포로수용소 개관
3. 포로들이 남긴 음악활동의 흔적
4. 포로들의 노래
5.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래의 역할
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투쟁 무기'가 된 노래
7. 끝맺으며

1. 들어가며

2018년에 개봉된 강영철 감독의 영화 <스윙키즈>는 6·25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¹⁾ 포로들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1840)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태프댄스 활동과 스토리는 영화적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이지만, 실제 수용소 내에서 댄스단원이 있어서 태프댄스를 하였고²⁾, 음악, 미술, 연극, 스포츠 등 교양, 오락 취미 활동도 다양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대전의 다른 외국 포로수용소에서도 포로들이 음악, 연극, 스포츠 등의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거제 포로수용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전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포로수용소의 성격상, 지금까지 6·25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용소 내 좌우대립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6·25전쟁은 포로의 ‘협상전쟁’³⁾ 또는 ‘포로전쟁’⁴⁾이라 칭해질 정도로 포로의 문제는 휴전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포로가 생기고, 포로가 생기면 포로수용소가 필요하다. 포로수용소에는 어디든 전쟁 종료까지 철조망 안에서의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있었고, 제한적이거나 일상이 있었다. 포로들 간의 스트레스나 불안감, 긴장감으로 자살률이 높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면 곤란한 일이었다. 더욱이 포로는 적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되고, 포로가 된 아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막대한 교환가치를 가진다. 또한 포로를 많이 생포할수록 적군의 병력은 약화되므로,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에서는 피난민보다 포로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에 수

1) 1993년 개봉된 토마스 카터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스윙키즈>도 있다. 여기서는 나치 지배하에서 금지된 재즈와 스윙이 일종의 저항문화로 여겨졌던 제2차대전 시기의 독일 상황을 다루었다.

2)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대구: 맏인사 2000, 211쪽.

3) [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괴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 국방TV https://www.youtube.com/watch?v=aV_2NaSUIL4 (검색일 2020. 9.10.)

4)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5, 2009, 45쪽.

용하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거제 포로수용소는 격렬한 폭동과 폭력과 이념전쟁으로 그 이전의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포로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미군 수용소 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발생한 곳이었다.

냉전의 첫 대리전으로 치러진 6·25전쟁과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만, 포로들의 스포츠, 연극, 음악 등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 논문은 포로들의 문화활동 중에서도 음악활동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음악 중에서도 노래의 다양한 이용가치에 주목한다. 포로들의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노래는 그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강력한 투쟁의 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로들의 노래 투쟁이 냉전의 첫 열전의 결과로 탄생한 거제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곧 6·25전쟁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음악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거제 포로수용소의 외형적 구조와 일상을 그려 보고, 포로들의 음악적 활동 중 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거제 포로수용소 개관

가.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하여

맥아더의 인천상륙 성공 이후, 북한군포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포로수용소

가 1951년 초 거제도에 건설되었다.⁵⁾ 1954년 기준으로 유엔군이 관할한 포로는 북한군 110,641명, 중국군 23,097명, 남한에서 징집된 남한출신‘의용군’, 빨치산, 피난민, 어린 소년병 등 민간인 억류자 48,358명 중 사망자 실종자 제외하고 총 177,779명이었다.⁶⁾ 이들 포로들의 집결지로서 거제 포로수용소는 1951년 12월 말까지 약 17만명의 포로를 수용하여⁷⁾ 6·25전쟁 동안 최대 포로수용소가 되었고, 그때까지 동아시아의 단일 포로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의 구성도 제2차대전의 일본 포로수용소나 연합군 포로수용소 또는 나치 집단수용소, 미국의 독일군 수용소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작위적이었다.⁸⁾

부산 포로수용소를 비롯하여 인천과 평양의 포로들이 모두 집결한 후를 기준(1952년 1월)으로 거제포로수용소의 약 17만 명의 포로는 총 4개의 구역수용소(Encloser)에 나누어 수용되었다. 남한 의용군출신이 모인 제6구역은 제60-69수용동, 인민군이 주로 배정된 제7구역은 제70-78수용동, 제8구역은 제81-86수용동, 제9구역은 제91-96수용동까지 있었다. 즉, 총 31개의 수용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⁹⁾

5)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포로수는 급증하여 1950년 12월 말까지 총 137,212명이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78쪽. 거제도는 부산에 가까운 섬으로 포로가 탈출하기 힘든 곳으로 지형상 유리했다.

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민속원, 2018, 17쪽.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의 책, 30쪽. 거제포로수용소는 1951년 1월부터 건설되어 1955년 3월 폐쇄되므로, 약 4년간 존재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85쪽) 1951년 2월 말까지 53,839명이 이송되었고, 4월 중순까지 93,776명이 수용되었다. 조성훈, 같은 책, 80쪽.

8) 거제 포로수용소에는 아이와 엄마들도 있고, 소년들이 약 3천 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애육원과 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되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64쪽.

9) 제64수용동은 야전병원이었다. 1952년 미군의 캠프지도에는 여성포로들(300여 명)의 수용소는 번호없이 ‘여성 포로 캠프(Female prisoner camp)’로 되어 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82쪽 재인용.

각 구역수용소에는 취사장, 의무실, 숙소, 학교, 예배당, 영창, 교육 및 여가활동 건물이 있었고, 수용소의 중앙에 연병장이 있어서 각 구역수용소의 포로들이 축구나 달리기를 할 수 있었다.¹⁰⁾ 배구장, 배드민턴코트, 소프트볼 코트, 축구장, 복싱장, 테니스 코트 등 유엔군 경비병을 위한 여가시설은 따로 있었다.¹¹⁾

거제 포로수용소의 외형은 그리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포로수용소에 학교가 있는 것도 이미 제1차대전이나 제2차대전의 포로수용소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1차 대전 때 칭다오 전쟁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독일·오스트리아 포로들은 철조망 속의 지루한 일상을 견디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포로학교(칼리지)를 만들어 어학코스나 기술, 문화예술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¹²⁾ 또한 제2차대전 시기, 북아프리카나 프랑스에서 포획되어 미국 본토에 수용된 독일군 포로들도 자체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지리, 화학, 수학, 경영 등을 가르치고 배웠다. 일부 포로는 미국의 대학 교육을 방종으로 이수하였고, 귀환 후에는 독일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았다.¹³⁾ 미 헌병감실에서도 독일군의 재교육을 위한 특별프로젝트(Special Projects Division)를 은밀하게 실시하였지만, 소수에 국한되었고 큰 효과가 없었다.¹⁴⁾

10) 축구 외에도 농구, 복싱, 배구, 야구 등도 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40쪽.

11) 1952년 2월 1일자 미국문서에 의한 것임. 조성훈, 앞의 책, 83~84쪽 재인용.

12) 習志野市教育委員会編, 『ドイツ兵士の見たニッポン. 習志野俘虜収容所 1915-1920』, 東京: 丸善ブックス 2002, 58~59쪽.

13) "German Prisoner of war", *Handbook of Texas*, Texas State Historical Association, <https://www.tshaonline.org/handbook/entries/german-prisoners-of-war> (검색일 2020.11.11.)

14) 주 4회 이상 상영되는 영화가 독일군의 재교육에 더 효과적이었다.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t.net/men/pow/recreation.htm> (검색일 2020.11.11.)

하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학교는 포로들의 자체적 활동 기구가 아니라, 수용소 정책으로서 수백 명의 민간정보교원을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⁵⁾ 수용소 당국은 직업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체제선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¹⁶⁾

나. 수용소의 일상

포로들의 일상은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 송관호에 따르면, 아침 6시 기상하여 아침 식사 후 점호를 하고 나면 점심까지 소일거리로 보내다가, 저녁 식사 후, 20시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취침하였다.¹⁷⁾ 이런 일과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5-6시 기상, 취침 20시-21시, 세 끼 식사 사이에 점호와 체육 및 소일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포로수용소에서 도 비슷했다.¹⁸⁾

포로들은 제3차 포로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에 따라 수용소 건설을 위해 투입되거나 보급품, 장비 하역하는 일 등의 수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421-449쪽 참고.

16) 포로재교육을 혜택으로 여겼던 반공포로들과 달리, 친공포로들은 이를 '노예교육'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며 저항했다.

17) 김정운 정리,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서울: 눈빛출판사 2015, 142~144쪽. 송관호는 처음에는 친공이 지배하는 제76수용소에 배치되었다가 나중에 우익 수용소인 제82수용소로 전출되었다.

18) 전갑생은 오전 5시 30분 기상과 아침 식사, 6시 30분 집합점호, 7시 오전 일과 시작, 11시 30분 점심식사, 오후 1시 작업 인원집합, 오후 4시 오후 일과 종료, 오후 5시 저녁식사, 오후 8시 소대별 점호 후 취침으로 서술한다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07~208쪽). 제1차대전기의 일본의 포로수용소도 비슷한데, 6시에 일어나 점호하고 아침식사, 12시 점심, 오후 자유시간, 저녁식사 6시, 9시에 취침하였다. Maïke Roeder (ed.),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 *Deutsche Kriegsgefangene in Japan 1914-1920*. Begleitheft zur Ausstellung der OAG. Tokyo: PrintX Kabushikigaisha, 2005, pp. 39~40.

용소와 관련된 일 외에는 노동에 동원되지 않았다. 그래도 미군은 포로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수용소 설치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익보다 행정과 보안 등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다.¹⁹⁾ 따라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았던 포로들은 수용소 시설보수나 울타리 설치, 신축 포로막사 건축, 지붕작업 및 농사 등의 수용소 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므로, 시간이 많았다.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의 일상을 자치에 맡기고 수용소내 친공이나 반공의 충돌 투쟁에도 무관심하여 간섭하지 않았으므로, 친공포로가 장악한 수용소의 내무반 일상은 군대식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북한군 장교들이 모여있는 제66수용동에서는 하루 5차례 군가와 구호를 불렀고, 아침·저녁에는 정치학습이 있었으며, 저녁마다 자아비판 시간을 가졌다.²⁰⁾ 이러한 제66수용동의 일상은 1951년 6월 초에 시작되었는데,²¹⁾ 휴전협상 전에 이미 공산주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포로들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다. 친공 vs 반공의 첨예한 갈등

제2차 대전까지만 해도 포로는 일률적으로 ‘적국의 군인’으로 노획되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군과 아군이 외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제1, 2차대전의 포로 중에도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거나, 보수적 성향이 있었지만, 포로 개인의 이념적 차이는 수용소생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²²⁾ 미국 본토에 수용된

19) 대신,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한국 민간인을 고용하였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36쪽.

20)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서울: 고려원, 1991, 260쪽.

21) 주영복, 앞의 책, 256~260쪽.

독일군 포로 중에 바펜SS(Waffen-SS)나 나치추종자들이 반대파를 위협하고 살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미군은 이들을 재빨리 격리시켰으므로, 친나치 vs 반나치의 대대적인 충돌은 없었다.²³⁾

하지만, 이념이 중요해진 한국전쟁에서 사상전에 무지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했던²⁴⁾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을 북한군이냐 남한 출신이냐와 같은 형식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포로간의 살인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만약 국군이 포로문제를 책임졌더라면, 국군 낙오병을 비롯하여 경찰관, 우익청년단원 115명이 포로로 수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²⁵⁾ 하지만, 국군은 포로에 대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어, 한국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유엔군이 포로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적군인지 아군인지 불분명한’ 포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던 반공주의자들이 미군의 포로가 되었고, 황해도 구월산 반공청년들이 미군과 지휘권 갈등으로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⁶⁾ 즉, 이는 포로가 된 국군이나 반공주의자들이 적군인 인민군 포로들과 같은 막사 생활을 하였음을 의미하였다.²⁷⁾ 예를 들어 제95수용소처럼

22) 제1차대전 중 일본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독일-오스트리아 포로 중 사회주의자나 국수주의자의 대립보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중립국에서 1915년 5월 연합군 편으로 넘어갔으므로, 오스트리아군 포로 속의 이탈리아 출신은 갑자기 적군이 되어 오스트리아 포로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가 있었다. 大津留厚, 『青野原俘虜收容所の世界: 第一次世界大戦とオーストリア捕虜兵』, 東京: 山川出版社 2007, 74-78쪽,

23) Michael Campisi: Camp Ruston: German p. O.W.'s in Louisiana, *Louisiana Public Broadcasting*, 2007. <https://www.youtube.com/watch?v=EjcbKd4Y2s> (검색일 2020.11.11.)

24)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10쪽. 독일군 포로들 중에서 골수나치를 일찌감치 골라내었던 미 당국의 적극적 태도는 이데올로기 전쟁인 한국전쟁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5)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64쪽.

26)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272쪽.

27) 주영복은 제66수용동의 국군장교가 인공기를 들고, 인민군 장교(반공)가 태극기를

피난민이 400명, 전 국군이 150명, 북한군 장교 108명, 북한군 사병이 함께 편성되어 일상에서 잦은 갈등이 있었다.²⁸⁾ 그래도 아직 이념대립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거제 포로수용소 생활 초기에는 그런대로 내부갈등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육전으로 표출된 포로들의 친공 vs 반공의 분열은 연합군측이 ‘포로자동송환’이 아닌 ‘자유송환’을 주장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²⁹⁾ 실제로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51년 7월 전후부터 1952년 6월 포로의 분리 수용까지 약 1년간 포로들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심하게 격돌하였다.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드러났던 것은 1952년 5월 7일 도드(Francis Dodd) 수용소 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납치사건이었다. 이후 미군측은 수용소 통제의 실패를 무력진압으로 무마하고자 했다. 미군의 수용소 정책은 처음부터 갈팡질팡했고³⁰⁾, 보트너(Haydon L. Boatner) 소장의 주장대로 “거제도 사건의 대부분 원인은 미군의 낮은 질”에도 이유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투부대와 보급부대 및 본부에서 거절당한 자들이었다”고 한다.³¹⁾

제네바협약에 위배되는 미군측의 ‘자유송환원칙’은 복잡한 포로 구성으로 인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전이라는

들고 싸우는 모습을 아이러니한 현실로 묘사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97쪽.

28) 1951년 10월의 미군문서(Command Report, 4980/407),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98쪽 재인용.

29) 김정운 정리, 『전쟁포로 송환호 6·25 전쟁수기』, 168쪽.

30)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소통을 위한 통역요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미군의 포로 분류작업의 시행착오로는 포로송환 때까지도 포로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00~101쪽.

3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92쪽.

체제경쟁의 프레임 안에서 미군의 이념적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각 진영의 포로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매커니즘이 형성되었다.³²⁾ 즉,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태극기 문신을 새기거나 혈서를 쓰는 것은 반공 포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³³⁾, 친공포로는 친공포로대로 귀환 후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포로와 미군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했다. 귀순하여 미군에 협조적이었던 이학구가 1년 후, 전대미문의 수용소 소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친공포로의 대표단장이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³⁴⁾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이 분리 수용되기 전까지 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포로수용소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살벌한 일상이었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일상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이런 때일수록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과 문화가 중요했다. 반공포로로 우익측 신문 ‘거제신문사’에서 일했던 이한은 “긴장에 지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술이며 오락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³⁵⁾ 또 다른 반공포로 오세희는 폭동으로 골머리를 썩이던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의 오락과 정서에 호소”하는 의도로, 연극공연과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게 하고, 신문을 만들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한다.³⁶⁾ 그럼에도, 포로의 문화·

32)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38호 2017, 317~356쪽.

33) [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의 생존 반공포로들은 모두 문신을 했고, 손가락을 깨물어 싸인을 했다고 증언한다.

34) 자세한 것은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17~356쪽. 주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이학구는 미군이 공산측의 포로가 된 단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귀순한 자신을 오히려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밀어내었음을 알고 있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24쪽.

35)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9쪽.

36)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41쪽.

오락활동은 지금까지 포로들의 회고나 구술자료 및 포로 연구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포로들이 남긴 음악활동의 흔적을 살펴보자.

3. 포로들이 남긴 음악 활동의 흔적

포로수용소의 일상에서 대체로 장기, 바둑을 포함한 스포츠가 포로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지만, 도구가 필요 없는 이야기꾼의 스킬 넘치는 탐정 이야기나 눈물 나는 로맨스 이야기도 포로들에게 영화를 본 듯한 즐거움을 선사했다.³⁷⁾ 또한 까다로운 도구가 필요한 연극과 미술전시회 그리고 기악음악도 수용소의 오락과 교양에 중요한 장르였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은 독창에서부터 합창과 악기연주까지 즉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소 일상과 이념대결에서 활용되었다.

포로들의 음악활동은 비단 거제 포로수용소만의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 어떤 수용소에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제1차대전 중 독일·오스트리아군을 수용한 일본이나 영국의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바그너, 베토벤 등의 수준 높은 음악 연주가 있었다.³⁸⁾ 또한 태평양전쟁 중 태국의 콰이강 다리 건설에 강

37) 평양의 중학교 교사였던 한 북한군포로는 밀천이 떨어진 적이 없는 재능 많은 이야기꾼으로 인기가 높았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172쪽.

38) 특히 제1차대전 중 칭다오에서 일본의 포로가 된 독일, 오스트리아포로들 4,700여 명은 1914년부터 1920년 귀환할 때까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심포니 음악을 직접 연주하였다. Schmidt, Hans-Joachim (2002), *Die Verteidiger von Tsingau und ihre Gefangenschaft in Japan* (1914 bis 1920). <http://www.tsingtau.info> (검색일 2020. 2.1.)

제노역을 해야 했던 연합군 포로들도 노래와 악기연주를 했던 흔적이 있다.³⁹⁾ 더욱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나치의 살인공장이자 할 수 있는 강제 집단수용소(KZ)에도 소녀오케스트라, 남성 오케스트라 등 여러 개의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시체 타는 악취를 덮는 죽음의 향수 같은 역할을 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일군 포로들도 캠프오케스트라, 브라스밴드, 댄스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을 조직하여 연주했다.⁴¹⁾

각 수용소마다 음악이 연주된 배경은 다르다.⁴²⁾ 잦은 폭동과 피를 부르는 투쟁이 첨예했던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음악은 앞의 외국 수용소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접어두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활동만을 찾아보면, 포로의 음악연주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포로들은 깡통으로 직접 트럼펫이나 얼후를 만들었고, 케이크 상자와 맥주캔 등을 사용하여 기타를 만들기도 했다.

39) 다비드 커닝햄(David L. Cunningham) 감독의 영화 <전쟁이 끝날 때까지 To the end of wars>(2001)에도 포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는 실제로 살아남은 영국 포로의 체험담을 기록한 어네스트 고돈(Ernest Gordon)의 『콰이강의 기적 Miracle on the River Kwai』(1977)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40) 아우슈비츠에서의 음악은 가해자에게는 기분전환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주거나, 연주자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주는 매우 모순적인 매체였다. Christiane Tewinkel, “Gedenkkonzert für Opfer des Holocaust: So achtsam wie nie”, *Der Tagesspiegel* (2015. 1. 29).

41) Jeff Roberts, “POW Camps in World War II”, *Tennessee Encyclopedia*, <https://tennesseencyclopedia.net/entries/pow-camps-in-world-war-ii/> (검색일 2020.11.11.);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net/men/pow/recreation.htm> (검색일 2020.11.11.)

42) 제1차대전전의 일본포로수용소의 음악에 대해서는 이경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6; 아우슈비츠의 음악에 대해서는 Gabriele Kan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ältigung*, Hamburg: Bockel, 1996. 참고.

<사진 1> 직접 제조한 트럼펫(좌)⁴³⁾, 직접 제조한 얼후를 연주하는 중국군 포로(우)⁴⁴⁾



이한의 『거제도 일기』에 따르면, 원래 국군 특무상사였는데 착오로 유엔군의 포로가 된 전직 국군 포로는 기타를 직접 만들었다. 기타의 앞과 뒤판에는 케이크 상자의 오동나무를 이용하고, 옆의 운두는 맥주 깡통을 잘라서 만들었으며, 기타의 가는 줄은 가는 철사를 이용한 반면, 굵은 선은 미군을 통해 마련하여, 약 1주일 걸려 완성했다.⁴⁵⁾ 뿐만 아니라, 그는 깡통을 이용해서 통소를 만들었고, 생선껍질을 말려서 북도 제작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했다. 이런 악기들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나 알베르트 케텔비(Albert Ketelbey 1875-1959)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In a Persian Market> 선율도 연주했다고 한다.⁴⁶⁾ 다른 한편, 중국군 포로는 쥐 가죽을 햇볕에 말린 후, 알루미늄 통에 붙여 얼후를 만들었다고 한다.⁴⁷⁾

43)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77쪽.

44) 이 사진은 1952년 3월 20일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문서번호 C7259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사료관)

45)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2쪽.

46)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3쪽.

47) 알루미늄 통은 막사 기둥의 이음매에서 잘라 내었다고 한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손준식 옮김),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9, 153쪽.

<사진 2> 얼후연주단(좌)⁴⁸⁾와 제93수용동 포로들이 만든 기악단의 공연 모습(우)⁴⁹⁾



<사진 2>의 좌측 사진은 중국군 포로의 얼후 연주단으로, 전통 악기로만 되어 있다. 맨 앞자리 포로가 연주하는 6각형 얼후를 제외하고, 모두 깡통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 사진은 북한군 포로의 합주단으로 다른 포로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예단인 듯하다.⁵⁰⁾ 자신이 제조한 장구, 피리, 통소 등의 전통악기와 클라리넷, 기타 등 서양악기가 혼합되어있다. 팻말에는 ‘93여단 합창단’, ‘93여단 교향악단’ 등이 적혀 있어서 제93수용동의 포로들은 여러 개의 음악단체를 만들어 운영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51년 12월 11일 촬영된 이 사진은 우익수용소인 제93수용동에서 개최된 것으로, 포로들을 위한 민간정보교육국(Civilian Information & Education Division, CIE)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포로학교(CIE)를 내걸고 연주하는 제81수용동 악단의 모습도 영상에 남겨져 있다.

48) 손구원.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2001, 278쪽.

49) 출처: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1985, 문서번호 SC-386459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사료관)

50) 이 사진에 대한 영어 해제는 “Using instruments they have made themselves, members of the band entertain other POW’s during program held at the 93rd POW Compound 9th POW enclosure, Koje-do Island, Korea”로 되어 있다.

<사진 3> 제81수용동의 포로악대⁵¹⁾



<사진 3>은 포로운동회를 위한 행사에서 촬영되었는데, 실외에서 연주하는 만큼 서양악기인 북, 트럼펫, 클라리넷, 오보에 등 관악기가 눈에 두드러진다. 포로들은 직접 만든 악기 외에도 밤의 암거래시장을 통해서, 국군헌병, 한국인 민간정보교육(CIE) 요원들을 통해서, 또는 미군을 통해서도 악기를 구할 수 있었다.⁵²⁾

<사진 4>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포로들⁵³⁾



51)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87쪽.

52) 연극을 공연할 때, 미군이 구해준 악기로 악극단이 연주했다고 한다. 오세희, 『65 포로수용소』, 215쪽.

53) 출처: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2003. 문서번호: 53-11740.

<사진 4>의 영어해제는 이 음악가들을 ‘포로 오케스트라’⁵⁴⁾로 칭하고 있다. 여기서 오케스트라는 악대를 의미한다. 악기는 바이올린, 비파, 아코디온, 기타,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호른 등의 구성으로 요즘 생각하는 정식 오케스트라의 악기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밴드 반주에 보컬리스트가 대중음악을 노래하는 장소는 방송 스튜디오일 가능성이 크다.

4. 포로들의 노래

이처럼 전통음악이든, 서양음악이든, 악대의 음악연주가 포로들의 오락을 도왔지만, 포로들의 인터뷰나 회고록과 일기 등을 보면, 이런 음악 연주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다. 반면, 거의 모든 포로들의 회고록에는 군가를 비롯하여 노래에 대한 기록은 자주 발견된다. 포로들뿐 아니라, 국군경비병이나 미군부대 근무자, 주변의 거제도 주민들의 증언에도 군가와 노래에 대한 기억이 훨씬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듯하다.⁵⁵⁾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거제 포로수용소만의 특징은 아니다. 독일의 나치시기 다하우(Dachau)나 부헨발트(Buchenwald),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등의 나치 집단수용소(KZ)에서도 포로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일터로 갔다가

54) 영어해제는 “A young prisoner of war orchestra playing popular Western tunes”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에 ‘Koje’가 아니라 ‘Korea’로만 되어 있어서 거제 포로수용소의 악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5) 1952년 5월 돛트 준장 납치사건 이후, 포로들의 소단위로 분리수용하는 정책이 세워지고, 수용소 주변의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28쪽) 그전까지 수용소 근처 마을 사람들은 포로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돌아올 때 행진곡을 부르면서 걸어야 했다.⁵⁶⁾ 하지만, 그곳에서는 만나치적인 가사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나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반파시즘 수감자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철자나 악센트를 바꾸어 나치들을 비웃고, 자신들끼리의 연대를 표현하는 정도였다.⁵⁷⁾

또한 제2차대전 시기 일본군의 포로가 된 싱가포르 연합군의 여성들이 수마트라 수용소에서 노래를 통해 힘든 포로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 여성포로의 노래활동에 대해서는 실제 당시 포로였던 오스트레일리아 간호원의 책을 원작으로 1997년 개봉된 브루스 베레스포드(Bruce Beresford) 감독의 영화 <파라다이스 로드> (Paradise road)에 잘 그려져 있다.⁵⁸⁾ 수마트라의 열악한 수용소에서 여성포로들은 아카펠라의 ‘목소리 오케스트라(voice orchestra)’를 만들었다. 포로들의 구성은 식민지 본토 여성과 서양 백인 여성이 섞여 있어서 언어와 문화와 계급적 차이로 인한 포로간의 불화가 잦았고, 이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수용소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 지친 포로들은 서로 한 맘이 되어 살아남는 일에 집중하고자 ‘목소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합창음악 덕분에 포로들은 서로 연대하게 되어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일본군마저도 청중이 되게 만들었다. 수마트라 여성포로수용소에서 노래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이전의 사회적 계급이 달랐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56) Gabriele Kna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pp. 111~112.

57) Stephan Stompor, *Jüdisches Musik- und Theaterleben unter dem NS-Staat*, Hannover: Europaeischer Zentrum für Jüdische Musik, 2001. pp. 236~248. 나치는 노래가 저항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금지했다.

58) 원작은 Betty Jeffrey, *White Coolies*, Sydney: Eden Paperbacks, 1954. 영화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Paradise_Road_\(1997_film\)](https://en.wikipedia.org/wiki/Paradise_Road_(1997_film)) (검색일 2020.11.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의 노래도 포로들에게 위로를 주고, 단결하도록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포로들이 친공과 반공으로 이분되어 싸웠기 때문에, 위로와 단결은 같은 진영의 포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6·25전쟁 이전의 전쟁에서 포로와 수용소 당국은 1대1의 관계로 비교적 단순했다. 제1차 대전 중 독일·오스트리아군 포로가 약 4천7백 명이 수용되었던 일본 포로수용소에서도 포로들의 자치체가 허락되었고, 독일군이나 오스트리아군의 군대 계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⁵⁹⁾ 여기서는 포로간의 분열은 없었다. 적어도 수용소 당국에 저항할 때, 포로들끼리는 같은 편이었다.⁶⁰⁾

또한 나치강제수용소에서도 포로들 중에 염탐하는 첩자가 있었고, 포로이지만 수용소에서 특별업무를 가진 카포(Kapo)⁶¹⁾ 및 특권층의 포로들이 다수의 일반 포로를 억압하는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지만,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포로가 양분되어 투쟁하는 일은 없었다. 서로 이권을 두고 포로들끼리 다투는 일은 자주 발생했지만, 나치수용소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저항자체가 드물었다.⁶²⁾

59) 이경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6, 461쪽.

60)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포로수용소에서도 오스트리아군으로 입대했던 이탈리아인이 1915년 이탈리아가 동맹에서 탈퇴하여 연합군에 가담한 후, 독일·오스트리아 포로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으므로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예외였다. 또한 전쟁이 끝나자, 원래 동아시아에서 살았던 독일 포로들은 본국 독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이나 상하이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

61) 카포는 각 코만도를 관리·감독하는 십장(什長)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신은 노동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수용소 내 신분의 위계질서에서 볼 때, SS의 하수인으로 일반 수감자들 위에 군림했다.

62)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제 무력저항운동은 1944년 11월 7일 아우슈비츠의 시체처리반 유대인들이 화약과 무기로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를 폭파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제2차 대전 시기 연합군에게 잡혀 미국 본토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독일군 포로 가운데 나치추종자들이 반나치 동료포로를 살해했던 경우가 있었다.⁶³⁾ 수용소 당국은 나치와 나치추종자들을 골라내어 따로 격리시켰으므로, 포로전체의 양분이나 폭동의 배경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약 700개의 미국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약 40만 명의 독일포로들은 미국의 산업체나 농장 또는 벌목을 위한 노동력으로 투입되어 종일 일을 해야 했다.⁶⁴⁾ 포로들은 일당 8센트의 임금을 받았으며, 의식주도 양호해서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⁶⁵⁾

반면, 훨씬 열악했던 조건의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투쟁 구도는 수용소 관리측 vs 친공포로측 vs 반공포로측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자각이 없었던 수용소 당국이 무간섭 원칙으로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⁶⁶⁾ 포로들 간의 살육전쟁이 벌어졌고, 시위와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실패로 끝난 이 저항운동으로 은밀하게 도왔던 4명의 여성수감자들은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고, 총 450여 명이 살해되었다. Shmuel Krakowski, “Der unvorstellbare Kampf”, Barbara Distel (Hrsg.): *Frauen im Holocaust*, Gerlingen: Bleicher Verlag 2001, pp. 289~300.

63) 오클라호마의 통가와(Tonkawa) 수용소에서 그런 폭동이 있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55쪽. 미국 정부는 반나치 포로동료를 살해한 14명의 나치 포로들을 종전 후 사형에 처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prisoners_of_war_in_the_United_States#Prisoner_resistance (검색일 2020.11.9.)

64) Nazi Prisoner in America - Out of the War (WW2HRT_32-02)<https://www.youtube.com/watch?v=HcQcfv9jXUI> (검색일 2020.11.10.)

65) 독일군 포로들은 미군 병사와 같은 수준의 음식배급을 받았다. 한 독일 포로는 포로생활 2년 동안 몸무게가 57파운드(25.8Kg) 늘었다고 한다. Lewis H. Carlson, *We were each other's prisoners*, New York: Basic Books, 1997, p. 208.

66) 미군들은 “A red dog bit the other one” 정도로 바라보았는데, 주영복은 이를 미군 당국의 큰 실책으로 보았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27~ 233쪽.

특히 친공측 포로들은 반공측 포로들과도 싸워야 했지만, 동시에 수용소 당국에도 저항해야 했다. 반공측 포로의 포섭뿐 아니라, 수용소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래도 필요했으므로, 노래 레퍼토리의 수요는 매우 컸다고 하겠다. 어떤 포로수용소이든 행진을 위해서 또는 위로와 격려와 오락을 위해서 노래가 불려졌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의 복잡한 구도에서 포로들의 노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노래가 거제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5.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래의 역할

가. 노래를 통한 오락과 위로와 화해

적군의 노래와 아군의 노래를 구분하는 것은 음악장르나 스타일 자체보다 가사와 그 노래가 연주되는 맥락에 있을 것이다. 음악이 흥겹거나 슬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해주거나センチ멘털하게도 만드는 것처럼, 포로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철조망에 갇힌 처량한 신세를 잊고 명량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반공포로 이한에 따르면, 좌익포로들과 분리된 후(1952년 6월), 우익포로들만 있었던 곳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명량한 분위기였는데, 노래를 잘하는 별명이 ‘노다지’라는 포로가 인기를 독점하였다고 한다.⁶⁷⁾ 그의 간드러진 목소리로 달 밝은 가을밤에 기타 반주에 맞추어 <타향살이>를 부르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피 우는 동료포로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도

67)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높아서 특별대우를 받았고, 늘 좋은 양담배 등을 피웠다.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9~93쪽.

“비단장사 왕서방... 평호와 평호와”의 중국 왕서방 흥내를 내는 익살스런 노래가 웃음바다로 만들었다.⁶⁸⁾ 이런 일은 거의 모든 포로수용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제65수용소의 오세희도 거제 포로수용소의 노천극장 가설무대에서 합창단이 “민요에서 가곡까지 일류로 공연”하여 포로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던 것을 회고한다.⁶⁹⁾ 천여 명의 포로 청중들은 남·북한 4중창의 멋진 노래에 갈채를 보냈다. 아마도 아직 좌우대립이 살벌한 수준으로 치닫기 전의 초기 수용소 시절이었던 것 같다. “포로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이었고, 인간생활에 예술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 공연은 남북한 출신이 잠시나마 사상적 논쟁을 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⁷⁰⁾

노래를 통해서 적과 적이 잠시 적대 감정을 잊고 친구처럼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거제포로수용소만의 경험은 아니었다. 유럽의 제1차 대전 중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참호전투를 벌였던 1914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있었다. 독일군 측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는 크리스마스를 참호 속에서 보내야 했던 독일군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⁷¹⁾ 그런데 그의 노래소리는 다른 편 참호 속의 프랑스군들의 귀도 사로잡았다. 노래가 끝나자, 프랑스 군인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앙코르까지 요청하였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프랑스 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Christian Carion)의 <메리 크리스마스 Joyeux Noël>(2005)이

68)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0~91쪽.

69)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1쪽.

70) 물론 이때 합창뿐 아니라, <놀부전> 공연과 댄스그룹의 탭댄스 공연도 있었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1쪽.

71) 노래 불렀던 성악가는 테너 발터 키르히호프(Walter Kirchhoff 1879-1951)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의 가수였다. https://de.wikipedia.org/wiki/Walter_Kirchhoff (검색일 2020.11.6)

다.⁷²⁾ 실제로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각국의 사령관에게 전달되었고, 평화적인 포로들은 다른 전선으로 차출되었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가해졌다.⁷³⁾ 노래를 통한 제1차대전 초기의 평화사건은 점점 끔찍한 전쟁으로 치닫던 후기에는 다시 발생하기 힘들었다.

다른 한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친공측과 반공측이 노래를 통해, 적대감을 잠시 잊는 사건은 오히려 자주 일어났으리라 추측된다. 적색(친공) 수용소의 친공 포로는 백색(반공) 수용소를 전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그중에 하나가 군가 부르기였다. 1952년 출판된 이한의 『거제도일기』에는 특히 달이 밝고 고요한 밤중에 멋지게 부르는 북한군 군가가 일반 포로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다고 보고한다.⁷⁴⁾ 북한군 출신 합창단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수용소 내에서 유명했다.

친공 포로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로 노래에 힘을 쓰고 있었던 반면, 포로들의 일기나 회고록에서 반공 포로들의 레퍼토리는 빈약해 보인다. <애국가>, <전우>, <대한반공청년단가>, <삼일절 노래> 등이 언급되는 정도이다.⁷⁵⁾ 이에 비해 회고록에서 언급되는 친공 포로들의 군가 레퍼토리는 <적기가>, <인터내셔널>, <김일성장군의 노래>, <스탈린 대원수의 노래>, <봄노래>,⁷⁶⁾ <조선유격

72) https://en.wikipedia.org/wiki/Joyeux_No%C3%ABl (검색일 2020.11.6)

73) [https://de.wikipedia.org/wiki/Merry_Christmas_\(Film\)](https://de.wikipedia.org/wiki/Merry_Christmas_(Film)) (검색일 2020.11.11)

74)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75) 반공측에서는 항상 안익태의 <애국가>를 대표곡으로 불렀던 반면, 친공측은 김원균이 작곡한 북한의 <애국가>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더 애창되었다.

76) 여성 포로 합창단이 불렀던 <봄노래>는 1952년 작곡되었는데, 가사 “1. 푸른 산 기슭에 기름진 들/황철나무 한그루 비껴선 마을에/백두산의 정기답아 맑은 샘물 솟아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2. 맑고맑은 이 샘물엔 사연도 많아라/조국으로 진군하던 빨찌산 대원들/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샘물을 마셨나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3. 빨찌산의 이야기 담겨진 이 샘물

대 전투가>, <빨치산의 노래>, <의용군 행진곡>, <인민해방군 행진곡>, <8.15> 노래 등 훨씬 풍부하다.⁷⁷⁾

제66수용동의 친공 포로는 건너편에 있는 반공수용소 제68수용동의 일반포로들에게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자 밤이건, 새벽이건 수시로 노래했다.⁷⁸⁾ 이에 반공측 포로는 이런 청각적 공세에 맞대응하여 북한군의 노래를 방해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반공포로 이 한은 ‘군가투쟁’이 친공측에 여러 모로 유리했던 것은 산을 등지고 놓인 친공수용소 막사의 위치 때문이라고 하지만⁷⁹⁾, 실제로는 밤이건 새벽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노래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친공 포로들의 역량 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친공측 포로들의 노래 공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반공측 포로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릴 정도였다.⁸⁰⁾ 노래 대결에서 친공포로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한 출신 의용군이나 반공포로에 비해 친공측 북한군은 전쟁 이전에도 평소 음악소조활동을 통해 노래 훈련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⁸¹⁾

물/이 마을의 젊은이들 마시며 자라서/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웠나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빨치산의 노래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HOyy0BPKo> (검색일 2020. 9.30.)

77) 주영복은 부산포로수용소 시기, 북한군 장교들이 일본 민요와 일본 유행가, 러시아 민요와 중국 노래도 불렀다고 한다. 다만 일본군가는 자제했다고 한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11쪽.

78)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0-61쪽.

79)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80)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81) 1949년 북조선 직업총동맹 군중 문화부에서 발행한 <음악씨클원 수첩>(1949)을 보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음악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Item #1-108. 음악 씨클원 수첩(군중문화총서 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국립중앙도서관)

반면, 반공측 북한군 포로는 남한 노래와 남한 군가를 새로 배워야 했으므로, 친공포로들의 단련된 노래 실력과 풍부한 레퍼토리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북한군 출신의 반공포로였던 송관호는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노래가 1952년 3월 1일에 불렀던 <삼일절 노래>였고, 그 외에도 <전우>를 비롯하여 남한 군가를 새로 배웠다고 한다.⁸²⁾ 특히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의 <전우>(1950)⁸³⁾는 남한 군가 중에서 가장 애창되는 곡으로서 북한군 반공포로 주영복도 서정적 가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⁸⁴⁾

군가투쟁은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지속되었다. 이 한은 군가 부르기로 양쪽 모두 기진맥진해질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기진맥진해지면 욱설도 나오고 유행가도 나온다. <아 신라의 달 밤이여>를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서는 <양산도>(양덕맹산 흐르고 나리는 물...)를 끄집어낸다. 나중에 서로 흥에 겨워 합창이 되고 ‘잘한다’ 하는 찬사가 막 터져나오니 이게 동족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라... 언어가 같고 풍속이 같고 얼굴이 같고, 핏줄기가 같은 족속들끼리. 이러다가 막판에 이르면 어느쪽에서 먼저 ‘오-이 저녁 먹구 합세’라고 고향치면 ‘저녁 먹고 또 기다리네’ 하고 댓구를 한다.”⁸⁵⁾

82) 김중운 정리,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163쪽.

83) 정확한 제목은 <전우야 잘 자거라>이고, 가사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거라”이다. 이 노래는 국방부에서 정식 제정한 군가가 아니고, ‘진중가요’에 속한다. 황문평, 전우야 잘 자거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9550> (검색일 2020.11.9.) 박목월 작사, 나운영 작곡의 대한민국 육군군가 <전우>(1973)는 다른 곡이다.

84)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15~316쪽.

체제선전을 위해 힘겨루기로 시작했던 군가투쟁이 노래로 흥이 고조됨에 따라, (원래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잊고) 즐거운 오락으로서의 노래대결 또는 노래자랑이 되어버린 듯한 현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내용으로 적의 진영을 뚜렷하게 나누는 군가와 달리, 유행가나 민요는 포로들이 이념과 상관없이 서로 공유하는 노래장르였다.⁸⁵⁾ 군가투쟁은 공산측의 폭동이 심해짐에 따라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었는데, 친공포로의 노래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반공포로 이한은 “쏘낙비 같이 쏟아져 나오는 붉은 군가”와 “우렁차게 부르짖는 스로간”이 수용소를 “휩쓸어버리는” 현상을 보고 “조직화된” 친공포로의 군가투쟁이나 구호투쟁을 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다고 1952년 『거제도 일기』에 기술하고 있다.⁸⁷⁾

나. 포로간의 신호, 심리전의 도구로서의 노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는 노래는 심리적 전략으로 효과적인 수단이다. 친공포로들은 다른 수용소의 포로들이 작업 나가는 때를 맞추어, 포로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 노래를

85)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2쪽. 판문점을 교차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트럭에서 북한군과 국군이 적이 아니라 동족으로서 서로 "수고했다"라며 손을 흔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188-189쪽.

86) 이런 현상에서 포로 이한은 언어와 풍속이 같고, 얼굴과 핏줄기가 같은데, 서로 싸워야 하는 “동족의 비극”을 한탄하였다.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2쪽.

87)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77쪽. 반공포로였던 이한에게 “깊은 밤 하늘에 뜬 총총한 별이며 뻗어오는 거제 앞바다 고요한 물결이 비취일 때 어데서인지 산 넘어 붉은 군가의 멜로디”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한, 같은 책, 79~80쪽.

불렀다. 또 1952년 3월 말, 제71수용동⁸⁸⁾ 수용소의 중국군 친공 포로들이 투쟁조직을 계획했으나 밀고되어 주동자 7명이 반공포로가 장악한 제72수용동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때였다. 친공포로 동료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운동장에 모여서 고문당하는 포로들이 끝까지 버티도록 노래로서 심리적 지원을 했다.⁸⁹⁾

또한 노래는 수용소 막사 내에서 상대 포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엿보기 위한 탐색수단으로서도 이용되었다.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통역관으로 활약했던 친공 측 중국군 포로 장쩌스(張澤石)는 거제도도 이송되어, 제86수용동에 배정되었다. 그는 포로 중에 누가 자기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방구의 하늘>, <단결이 힘이다>, <가자 마오쩌둥을 따라서> 등 중공군의 군가를 나지막하게 흥얼거렸다.⁹⁰⁾ 하지만, 반공포로가 득세하고 있던 제86수용동에서 선뜻 아군임을 드러내는 포로는 없었다. 반면, 장쩌스를 비롯한 친공포로들이 제86수용동의 반공포로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친공포로들이 장악한 제71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인민해방군행진곡>⁹¹⁾을 불렀는데, 우측 철조망(제73수용동) 쪽에서 약 100명의 중국군 포로들이 아군임을 드러내는 표시로 함께 노래했다.⁹²⁾

88) 장택석의 책에는 제70수용동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167쪽.

89)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168쪽. 도드 장군에게 7명의 친공포로를 제71수용동으로 보내달라는 항의편지를 쓰는 작업도 병행했다.

90)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87쪽. 장쩌스는 반공 포로 및 미군의 친공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국제적십자나 유엔당국에 알리는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91) <인민해방군행진곡>은 정률성이 작곡했다. 광주출생인 정률성이 1938년 작곡한 <엔안송>은 중국에서 당대의 최고 유행가로 인정받았고, 1939년 작곡된 <팔로군행진곡>은 중국국가로 여겨졌다.

노래는 동질성을 확인하며 자기편끼리 뭉치는 데에도 중요한 도구였다. 매일 아침마다 유엔군의 국기 게양식이 있는 시간에, 한편에서는 인공기를 올리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다른 편에서는 태극기를 올리며 <애국가>를 부르면서 각자 진영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⁹³⁾ 포로들이 수용소 내에서 각 진영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는 광경은 한국전쟁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포로들의 노래가 수용소 내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신호가 된 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가져다주었던 거제 포로수용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붉은 소굴”⁹⁴⁾로 불렸던 제62수용동에서 어느 날, ‘붉은 군가’ 대신, 국군의 노래 <전우>가 울려 퍼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래는 반공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하였음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신호였다. 물론 제62수용동은 곧 역쿠데타가 일어나서 붉은 군가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한국어를 모르는 미군 병사도 바뀐 노래를 통해 제62수용동이 누구의 세력하에 놓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⁹⁵⁾

다. 폭력을 은폐하는 도구로서의 노래

포로들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거나 음악 자체에 빠져 화해의 순간도 경험하고, 같은 편으로서 동질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노래로 시위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수용소에서

92) 장택석, 『중국어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128쪽.

93)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5화, 한국전쟁과 포로2: 철조망 속의 전쟁 (배중엽의 증언).

94) 이한, 『거제도 일기. 解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0쪽.

95) 이한, 앞의 책, 82쪽.

도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래는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다른 외국수용소에서 자주 있었다.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음악은 SS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비명소리 등을 희석하고, 은폐하는 데 이용되었다.⁹⁶⁾ 또한 가스실이 아닌 야외에서의 학살이 자행될 때 SS는 항상 스피커 음악을 틀어놓았다. 루블린의 마이다네크(Majdanek) 수용소에서 1943년 11월 3일 1만8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동안에, 또는 소비보르(Sobibor) 수용소 근처 숲속에서의 학살행위 때에도 트럭의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⁹⁷⁾

거제 포로수용소에서도 음악(노래)이 살인을 은폐했던 일이 있었다. 제66수용동 북한군 장교수용소에 소속이었던 주영복은 귀순 장교로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고, 특별천막에 갇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체험하였다.

“어느 날 밤 이기준의 천막에서 언쟁소리가 났다(...) 음성이 점점 더 커지더니 마구 치는 소리가 나고 굵기야 으악, 으악! 하는 비명이 들렸다. 이때 그 주변 천막에서 일제히 군가소리가 울러 이기준 천막 내의 아우성 소리는 어둠 속의 노래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망루의 경비병도 군가에 시달려 그런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 우렁찬 김일성 노래와 인민군 노래 속에서 광란한 적색 군관들이 (...) 이기준을 때려 죽였다.”⁹⁸⁾

96) Gabriele Kna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p. 87.

97) 볼프강 벤츠, 『홀로코스트』 (최용찬 옮김), 지식의 풍경, 2002, 148쪽.

98)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02쪽.

노래 소리가 비명과 구타소리를 뒤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영화에서도 자주 반영된다. 세르조 네오네(Sergio Leone) 감독의 영화 <석양의 무법자>(1966)에서 북부군이 포로가 된 남부군에게 폭력을 가할 때, 포로 음악밴드를 연주하게 하여 폭력의 소음을 희석하게 하는 장면이 그렇다.

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투쟁 무기’가 된 노래

유엔군과 국군의 지원을 받았던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들은 대한반공청년단을 결성했고(1951.8.7.), 북으로의 귀향을 거부했다.⁹⁹⁾ 반면 친공포로들은 해방동맹을 조직하여 이에 맞섰다. 대한반공청년단은 ‘자원송환’을 위한 포로들의 심사가 시작하자 북한을 자원하는 친공포로들에게 테러를 가하며 위협했고, 친공쪽은 이에 대항하고 보복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¹⁰⁰⁾ 친공포로들은 보다 많은 포로가 북한송환을 선택하도록 철저히 반공포로와 싸우면서 망설이는 포로들을 포섭해야 했다. 또한 이것은 귀환 후에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과 직결되었다.¹⁰¹⁾ 이런 배경에서 친공포로들은 노래를 적군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거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충성 없는 무기’로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99) 이들도 한광호 작시, 김정석 작곡의 <대한반공청년단가>를 만들어 불렀다. 대한반공청년단에는 문예종교국 산하 예술단이 있었고, 연극단, 음악단, 미술인단으로 세분화되었다. 노래의 악보는 손구원,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525쪽.

100)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5화, 한국전쟁과 포로2: 철조망 속의 전쟁. 이런 분위기에서 1952년 5월, 제76수용동의 친공포로들(대표: 총좌 이학구)이 도드 준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다.

101)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51쪽.

물론 태평양전쟁 시기에도 음악은 ‘군수품’이라 선전되었고, 국민가요, 행진곡 부르기 등이 강조되었다.¹⁰²⁾ 또한 당시 학생들에게 실시한 음감 훈련은 적군과 아군의 전투기가 내는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으로서 장려되었으며¹⁰³⁾, 상이군인을 위로하는 음악회나 전선을 돌며 병사들을 위한 위문 공연 등도 전쟁 수행을 돕는 행위였다. 아군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의미에서 음악은 소리로 지원하는 군수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에게 노래는 군수품의 차원을 넘어 훨씬 직접적인 투쟁 도구였다. 진짜 무기가 허락되지 않았던¹⁰⁴⁾ 포로들에게 노래는 투석전에 사용하는 돌과 같은 무기였다. 1951년 6월 19일 제72수용동에서 포로들은 식사를 거부하며 노래를 부르고 깡통을 두드리며 시위했고, 포로가 던진 돌에 미군 장교가 다치자 이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다.¹⁰⁵⁾

친공측 포로의 노래는 폭동과 시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금지된 노래를 불러 수용소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51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 저녁에 금지된 해방기념일 노래 <8.15>를 제창했다고 하여, 친공 포로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노래제창사건도 발생했다.¹⁰⁶⁾ 미군 장교 터커(Cary S. Tucker)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8월 15일

102) 계정식, 「음악시평: 음악은 軍需品이다」, 『新時代』 3권 6호, 1943/6, 129쪽. 음악을 ‘군수품’으로 칭한 사람은 일본해군 대좌 히라이데 이테오(平出英夫 1896-1948)였다. 임동혁, 「音樂の一年」, 『新時代』 3권 12호, 1943/12, 74쪽.

103)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교육회에서 발간한 일어잡지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1941년 11월호는 음감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04) 실제로는 반공측 포로나 친공측 포로는 각각 직업교육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무기를 만들어 살인에 이용하였고, 미군에 저항하기도 했다.

105)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5~216쪽. 이 절식투쟁에서 노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87쪽.

106)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8~219쪽.

저녁 9시 반 노래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격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8명의 북한포로를 비롯해 총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¹⁰⁷⁾ 반면, 북한문서는 “8월 15일을 기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미 헌병과 국군 보안대원들이 북한군포로들에게 발포하여 “44명 사망, 86명이 심각한 부상, 10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보고한다.¹⁰⁸⁾ 북한문서와 미군의 문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보고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친공포로의 노래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예민한 반응은 그만큼 친공포로의 노래가 위협적으로 여겨졌다는 반증이다. 다시 말해, 친공포로들은 노래를 일종의 무기로 이용하였고, 수용소 당국은 이런 맥락에서 ‘진짜 무기’로 대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선의 전투에서 진짜 무기의 수요가 컸듯이, 수용소의 이념 투쟁에서 ‘노래 무기’의 수요도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수용소 당국에 저항했던 중국군 친공포로들도 현장감 있는 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여개의 노래를 직접 만들었다. <거제도>, <누가 철이고 누가 강인가>, <우리는 평화를 너무 사랑해>, <3대 의무의 노래>, <일어나라, 친애하는 전우들이여>, <사랑스런 조국>, <그 말 듣지 않아>, <10월 1일의 흥기가 하늘 높이 휘날리네>, <만가>,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 등이 거제 포로수용소 현장에서 시시각각 필요한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¹⁰⁹⁾ 예를 들어, 류전지아 작사·모어페이 작곡의 <누가 철이고 누가 강인가>는 수용소 당국을 겨냥한 반미 노래이다.

107) 전갑생, 앞의 책, 219쪽.

108) 북한측의 보고는 미군측 사상자 숫자보다 거의 8배 많은데, 과장되었을 수 있다.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8~219쪽.

109) 모어페이 작사·작곡의 <거제도>와 장썸스 작사, 워싱이 작곡의 <만가> 두 곡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소·당국과의 투쟁에서 자신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노래한 것이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369~374쪽.

“보라 누가 철(鐵)이고 누가 강(鋼)인지
여기는 반제국주의의 제철소.
보라 누구의 철이 단단하고 누구의 강이 강한지
제국주의를 향해 발사하라.
우리는 결단코 그들과 한판 겨루어야 한다네.
우리는 철이고 우리는 강이네.
그것이 철을 녹이는 제철소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철은 단단하고 우리의 강은 강하네.
제국주의를 향해 발사하라.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완전히 소멸해야만 한다네!”¹¹⁰⁾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수용소 당국을 향해서 포로들이 “발사” 할 수 있는 것은 구호와 노래와 투석 정도일 것이다. 이 노래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포로작곡가 모어페이(莫非)가 부상병으로 귀국할 때, 의족에다 <포로수용소가곡집>을 숨겨서 왔기 때문이었다.¹¹¹⁾ 중국군 친공포로 진영에서는 모어페이같은 중국인 포로작곡가가 노래를 현장에서 만들어내어 투쟁했다면, 북한군 친공포로들은 북한 총정치국에서 만든 ‘노래집’을 지원받았으리라는 정황이 있다.

중국군의 전투참여가 결정된 후인 1950년 10월에 신설된 북한의 총정치국¹¹²⁾이 1951년 6월 전투에 투입되는 북한군

110)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369쪽.

111) 장택석, 앞의 책, 362쪽.

112) 총정치국에는 출판부, 협주단 등도 산하 조직에 들어 있다.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 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1쪽; 총정치국의 출판부와 협주단은 1948년 조직된 문화훈련국의 산하부서였다. 고재홍,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군사』 53, 2004, 146쪽 참고.

병사들에게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을 배포하였다. 이는 그만큼 병사들의 전쟁수행에서 노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¹³⁾ 총 15곡이 수록된 이 노래집은 숫자를 음으로 표기한 숫자보로 되어 있다. 숫자보는 1=도, 2=레, 3=미, 4=파, 5=솔 등의 원칙만 알면 쉽게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15곡 가운데, 중국군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곡으로 <영원한 친선>이 한 곡 들어 있다.

이 노래집이 발간된 시기는 유엔군측의 선전빠라와 대형스피커 방송에 영향을 받아 북한군의 전투 의지가 흔들렸고, 총 15여 만 명의 포로가 거제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상황이었다.¹¹⁴⁾ 1950년 10월 12일부터 귀순한 사람의 80%가 선전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미군과 국군 측의 선전 효과는 컸다.¹¹⁵⁾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1951년 11월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2권의 발간이다. 1951년 10월에는 전선이 고착되면서 38선을 중심으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소모전으로 빠져들어 양쪽 모두 지친 상황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양쪽 모두 체제경쟁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치열하게 전개하는 때였고, 동시에 12월 18일 포로명단 교환에 앞서 포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¹¹⁶⁾ 더욱이 친공

113) 중국군의 참전을 전후로 북한의 군대체제에 변동이 생기는데, 박헌영을 국장으로 하는 총정치국이 1950년 10월 21일 군대 내에 설립되어 병사들을 위한 노래집이나 시집 등을 발간하였다. 이신재, 앞의 글, 59쪽.

114) 6·25전쟁 중 전체 북한군 포로(약 15만 명)의 84%가 이미 이때 유엔군의 손에 들어갔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32. 선전물의 15%는 미 8군 사령부가, 85%는 극동사령부가 제작했는데 매주 1,400만 여장을 뿌렸다고 한다. 이 임하, 『적을 빠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 영화, 2012,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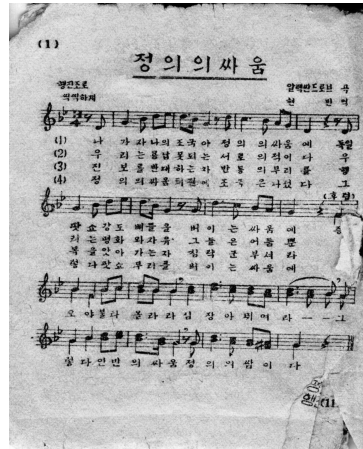
115) 1952년 1월 초까지 유엔군은 8억 6천만 매의 전단을 살포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50~51쪽.

116)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57쪽.

포로들이 거제도를 '제2의 전선'으로 여기며 본격적인 폭동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2권이 발간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제1권이 단선율로 된 노래들이고, 간단한 숫자보로 되어 있어 병사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던 반면, 제2권은 다수의 노래가 2성부, 또는 3, 4성부로 되어 있어서 합창까지 가능한 오선보 버전이다.

<악보> 제1권의 <개선행진곡>(숫자보)¹¹⁷⁾와 제2권의 <정의의 싸움>(오선보)



왼쪽 <악보>에서 보듯이, 임화 작사·김순남 작곡의 <개선행진곡>은 숫자보로 되어 있다. 반면, 오른쪽 제2권의 <정의의 싸움>은 오선보로 되어 있어서 악보를 읽을 줄 알고, 화음을 넣을 수

117)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1>, 1951.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9-7.1

118)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2>, 1951.11.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8/35.

있는 음악적 병사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소련 노래의 높은 비중과 중국 관련 노래의 부재이다. 제1권에는 그나마 중국과의 연대를 암시하는 노래가 한 곡 들어있었지만, 총 20곡으로 되어 있는 제2권에는 (중국군이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북한군을 돕고 있었지만) 중국 노래는 한 곡도 들어있지 않다. 반면, 첫 번째 노래 <정의의 싸움>을 시작으로 소련 노래가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알렉산드로브(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Александров 1883—1946)가 작곡한 <정의의 싸움>¹¹⁹⁾은 삼박자 계열에다 g단조로 되어 있는 서정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선율이지만 행진곡은 아니므로, 행진하며 부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증오야 불타 올라라 심장이 뛰 어라. 그렇다 인민의 싸움 정의의 싸움이다”로 되어 있는 후렴구는 멋지게 화음을 넣을 수 있어 전투를 위한 심리적 효과가 탁월한 노래이다.¹²⁰⁾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은 제1권이든 제2권이든,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통해 거제 포로수용소에 흘러 들어갔거나, 빨치산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1951년 말 북한의 인민군전사(pvt) 포로로 위장한 북한 특수공작대원 박상현이 거제 포로수용소에 잠입하였다.¹²¹⁾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평양의 총정치국이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1권을 숫자보로 출간했다면, 제2권은 거제 포로수용소의 시위와 노래투쟁을

119) 알렉산드르 바실리에비치 알렉산드로브는 소련국가도 작곡하였다.

120) 장쩌스는 소련 노래가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한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298쪽.

121) 박상현에 대한 유엔보고서(1953.1.)는 특수공작대원으로 거제 포로수용소에 잠입한 최고핵심인물로 규정한다. 박상현은 이후 수용소 내의 포로 시위와 폭동을 총지휘하였다.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33쪽 재인용.

지원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수준을 더 반영한 오선보로 출간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는 현지 상황에 맞게 바꾸어 부를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서정적인 소련 노래를 풍부하게 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설은 지면상 추후 연구할 것이다.¹²²⁾

7. 끝맺으며

거제포로수용소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노래로 시끄러운 수용소’였다. 시위와 폭동과 슬로건 외침으로도 시끄러웠지만, 매일 아침, 저녁 친공포로 수용동에서는 인공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고, 반공포로 수용동에서는 태극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친공측에 질세라 <애국가>를 불렀다. 친공수용소에서 탈출하여 거제도 장승포의 중계수용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반공포로 주영복은 그곳의 저녁 노랫소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오른쪽 천막은 인민군노래, 왼쪽 천막은 국군노래, 뒷 천막은 중공군노래, 국민당군 노래가 울린다. 어떤 천막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퐁퐁 퐁강 퐁강 퐁퐁... 북과 드럼통을 두드리고, 어떤 천막에서는 손가락으로 후라이팬과 깡통을 두드려대서 귀가 멀 정도였다.”¹²³⁾

122) 이정아의 논문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에 나타난 북한 전시가요의 특징」(『韓國音樂史學報』 62, 2019, 259-294)에는 노래집 발간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23)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14쪽.

거제 포로수용소에서는 새벽이고 깊은 밤이고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에는 낮대로 다른 수용동의 포로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자 노래를 불렀고, 목이 설세라 ‘군가투쟁’을 통해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힘겨루기를 했다. 포로들은 기회만 있으면 노래를 하였고, 수용소 당국은 8.15 해방기념일에 금지했던 노래를 부른다는 빌미로 무력 진압하는 일도 발생했다.

오세희의 회고에 따르면, 1951년 봄, 포로들이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거제도로 이송될 때만 하더라도, 미군헌병은 시가지에서 <김일성 장군>를 제창하던 좌익포로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좌익포로들을 구타하던 국군헌병을 제지했다.¹²⁴⁾ 하지만, 휴전회담에서 포로의 자유송환 문제가 친공 vs 반공의 체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노래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반응도 달라진 것이다. 노래를 투쟁 무기로 여겨 금지하거나, 노래를 저지하기 위해 소총과 기관총으로 발포하기까지 했다.

6·25전쟁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 노래가 포로간의 투쟁에서, 그리고 수용소 당국과의 투쟁에서 이런 정도로 전투력을 가지고 ‘총성없는 무기’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 것이다.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들에게 노래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동원될 수 있어서 포로들의 요구와 애환과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군가투쟁’ 중에 노래에 집중하다가 잠시 이데올로기를 잊는 순간도 있었지만, 포로송환문제가 이슈가 될수록 각자 생존을 위하여

124) 이에 좌익포로들은 더욱 신나게 <빨치산의 노래>, <적기> 등을 불렀다고 한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0쪽.

반대측 포로를 살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때 노래는 폭력과 살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희석하고 은폐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특히 반공측 포로들보다 수용소 당국의 정책에 저항해야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친공측 포로들에게 노래는 더욱 중요한 수단이었다. 노래실력이나 레퍼토리에서 우세했던 친공 포로들에게 노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방패였고, 수용소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총정 치국이 1951년 11월 거제 포로수용소의 친공 포로들의 노래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2권을 발간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냉전의 첫 열전의 결과로 탄생한 거제 포로수용소는 포로간의 투쟁과 수용소 당국과의 투쟁에서 노래를 적극 활용했던 수용소로서, 그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드물게 노래로 시끄러웠던 수용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6·25전쟁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음악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10. 13, 심사수정일 : 2020. 11. 13,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6·25전쟁, 포로들의 노래, 군가,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냉전, 음악

<참고문헌>

1.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아카이브의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자료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문서번호 SC-386459.
_____, 1860 - 1985, 문서번호 C7259.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 - 2003.
문서번호: 53-11740.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
북조선직업총동맹 군중문화부, 1949. <음악 씨클원 수첩>(군중문화총서 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1-108
조선인민군총정치국, 1951.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1>, 1951.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9-7.1
_____, 1951.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2>, 1951.11.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8/35
3. 잡지 1차 사료
계정식. 1943. 「음악시평: 음악은 軍需品이다」, 『新時代』 3권6호, 1943/6.
임동혁. 1943. 「音樂の一年」, 『新時代』 3권 12호, 1943/12.

4. 2차 사료

- 고재홍. 2004.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군사』 53, 군사편찬연구소, 143-180.
<http://uci.or.kr/G901:A-0001984842>
- 김중운 정리. 2015.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서울: 눈빛출판사.
<http://uci.or.kr/G901:A-0006565245>
- 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45-100.
<http://uci.or.kr/G901:A-000269213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민속원.
<http://uci.or.kr/G701:D-00114880809>
- 박진홍. 2001.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http://uci.or.kr/G701:C-00056992712>
- 볼프강 벤즈. 2002. 『홀로코스트』 (최용찬 옮김), 지식의 풍경.
- 성강현. 2016, 「거제도포로수용소의 9·17폭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40.
<https://doi.org/10.19162/KNM.86.2016.3.06>
- 손구원. 2001.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 오세희. 2000. 『65포로수용소』, 대구: 만인사.
- 이경분. 2016,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459-490.
<https://doi.org/10.17326/jhsnu.73.2.201605.459>
- 이상호. 2010.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호, 한국역사연구회, 421-449.
<http://uci.or.kr/G704-000054.2010..78.011>
- 이선우. 2017,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38, 역사문제연구소, 317-356.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493046>

- 이신재. 201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 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군사편찬연구소, 35-66.
<https://doi.org/10.29212/mh.2012..83.35>
- 이임하. 2012, 『적을 뼈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 영희. <http://uci.or.kr/G901:A-0006408758>
- 이정아. 2019,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에 나타난 북한 전시가요의 특징」, 『韓國音樂史學報』 62. 한국음악사학회, 259-294.
<http://uci.or.kr/I410-ECN-0102-2019-600-001695846>
- 이 한. 1952,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부산: 국제신보사 출판국.
- 장택석. 2009.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손준식 옮김),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http://uci.or.kr/G901:A-0006293388>
- 전갑생. 2011,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서울: 선인
<http://uci.or.kr/G901:A-0006325803>
- 조성훈.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uci.or.kr/G901:A-0006075440>
- _____,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서울: 선인.
- Carlson, Lewis H. 1997. *We were each other's prisoners*, New York: Basic Books.
- Knapp, Gabriele. 1996.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Hamburg: Bockel.
- Krakowski, Shmuel. 2001. “Der unvorstellbare Kampf”, Barbara Distel (Hrsg.): *Frauen im Holocaust*, Gerlingen: Bleicher Verlag.

- Roeder, Maike (ed.). 2005.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 *Deutsche Kriegsgefangene in Japan 1914-1920*. Begleitheft zur Ausstellung der OAG. Tokyo: PrintX Kabushikigaisha.
- Stompor, Stephan. 2001. *Jüdisches Musik- und Theaterleben unter dem NS-Staat*, Hannover: Europaeischer Zentrum für Jüdische Musik.
- 習志野市教育委員会編. 2002. 『ドイツ兵士の見たニッポン 習志野俘虜収容所1915-1920』, 東京: 丸善ブックス.
- 大津留厚(2007), 『青野原俘虜収容所の世界: 第一次世界大戦とオーストリア捕虜兵』, 東京: 山川出版社.

5. 구술 자료 및 영상, 인터넷 자료

거제포로수용소 포로들의 체육활동영상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owNm_JuP1UQ

국방TV, 2017, [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 .

https://www.youtube.com/watch?v=aV_2NaSUIL4&t=2667s (2020.11.18.)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군사편찬연구소. 2014. “거제도포로수용자DB”

<http://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400&siteId=imhc&menuUIType=sub>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특집 3부작 한국전쟁과 포로』 : 1부 철조망 속의 지배자들, 2부: 철조망 속의 전쟁, 3부: 철조망의 안과 밖.

<https://www.youtube.com/watch?v=uK3bnKMxM5w>
(검색일 2020.11.18.)

<봄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UaHOyy0BPKo>
(검색일 2020. 9.30.)

Carion, Christian, <Joyeux Noël>(2005).

https://en.wikipedia.org/wiki/Joyeux_No%C3%ABl

(검색일 2020.11.6.)

Campisi, Michael. 2007. "Camp Ruston: German p. O.W.'s in Louisiana", *Louisiana Public Broadcasting*.

<https://www.youtube.com/watch?v=Ejcbekd4Y2s>(검색일 2020.11.11.)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t.net/men/pow/recreation.htm>(검색일 2020.11.11.)

“German Prisoner of war”.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prisoners_of_war_in_the_United_States#Prisoner_resistance(검색일 2020. 11.9.)

“German Prisoner of war”, *Handbook of Texas*, Texas State Historical Association,

<https://www.tshaonline.org/handbook/entries/german-prisoners-of-war> (검색일 2020.11.11.)

Kirchhoff, Walter,

https://de.wikipedia.org/wiki/Walter_Kirchhoff(검색일 2020.11.6.)

“Nazi Prisoner in America – Out of the War”

(WW2HRT_32-02)

<https://www.youtube.com/watch?v=HcQcfv9jXUI>(검색일 2020.11.10.)

Roberts, Jeff. “POW Camps in World War II”, Tennessee Encyclopedia,

<https://tennesseeencyclopedia.net/entries/pow-camps-in-world-war-ii/>(검색일 2020.11.11.)

Schmidt, Hans-Joachim, 2002. *Die Verteidiger von Tsingau und ihre Gefangenschaft in Japan (1914 bis 1920)*.

<http://www.tsingtau.info>(검색일 2019. 2.1.)

Tewinkel, Christiane, “Gedenkkonzert für Opfer des Holocaust: So achtsam wie nie”, *Der Tagesspiegel* (2015. 1. 29).
<http://www.tagesspiegel.de/kultur/gedenkkonzert-fuer-opfer-des-holocaust-so-achtsam-wie-nie/11295344.html>(검색일 2019. 2.2.)

(Abstract)

Music of 'Geoje'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songs of prisoners –

Lee, Kyung-boon

There is no war without any POWs and then POW camps are needed. If there is a camp for POWs, there must be always their routines with sports, theater and music etc.. The Geoje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was no exception. However, so far, the music of prisoners in Geoje POW camp has not been researched, though the Geoje POW camp was such a noisy singing camp that it was hardly to see in any other POW camps of previous wars.

The Geoje POW camp was noisy with demonstrations, riots and slogans, but the prisoners sang whenever they had the chances to sing. For prisoners, songs can always be easily mobilized anytime, anywhere, making them the simplest and most convenient instruments of expressing their demands, joys, grievances and resistance.

Especially for pro-communist prisoners, singing was important as a means of struggle against anti-communist ideology and against the policies of the camp authorities. In this contex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cond volume of "The Songs for the Soldiers" published in November 1951 reflects the intention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in Pyongyang to support the song struggle of pro-communist prisoners at the Geoje POW camp.

This paper explored the songs of the prisoners of Geoje POW camp which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In conclusion, the diverse value of the song in the Geoje POW camp was hard to imagine in other POW camps of previous wars, which can also be seen as a characteristic of the Geoje POW camp, which was born as the first result of the Cold War period.

Keywords : Korean War, Prisoner of War, military songs, Geoje POW camp,
The Songs for Soldiers, Cold War and music